



# 걸프전쟁이후의 세계석유수급 전망

金 乾 洽  
(본지 편집인)

걸프전쟁은 지난 2월 28일 美國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걸프전쟁은 정치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평화와 안전보장에 의한 지배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걸프전쟁은 세계석유시장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는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그동안 유가인상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이라크의 OPEC(석유수출국기구)내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가격정책면에서 온건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가격면에서 가장 온건했던 쿠웨이트도 전후복구와 방위비의 부담 때문에 종전처럼 가격억제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걸프전쟁은 OPEC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가격정책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사우디아라비아등 온건파 산유국의 영향력 강화이다. 사우디는 걸프전쟁을 계기로 산유량을 750만 B/D에서 900만 B/D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유량을 250만 B/D로 확대한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OPEC내에서 온건파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지난 3월 11일에 열린 OPEC 각료감시위원회에서 유가상승보다 석유수요 회복을 우선하려는 사우디

의 주장이 관철된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걸프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90년대 중반에 예상되었던 석유수급 팽박이 적어도 '90년대 후

반 이후로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등 OP-

### 자유세계의 장기석유수급전망

(단위 : 백만 B/D)

	1990	1995	2000
석유 수요	52.6	56.4	59.3
석유 공급			
· OPEC			
원유	23.0	26.3	29.9
천연가솔린	1.9	2.1	2.3
小計	24.9	28.4	32.2
· 非 OPEC	28.7	28.0	27.1
공급 計	53.6	56.4	59.3
공급 능력			
· OPEC 원유	27.4	32.6	35.5
(가동률, %)	(84.1)	(81)	(84)
천연가솔린	1.9	2.1	2.3
· 非 OPEC	29.2	28.5	27.2
小計	58.5	63.2	65.0
공급여력	5.9	6.8	5.7

〈註〉 非 OPEC는 공산권 수출 포함.

EC 11개국에 430만 B/D의 이라크, 쿠웨이트석유의 상실분을 메꾸기 위해 산유량을 '90년 7월의 2,180만 B/D에서 동년 12월에는 2,430만 B/D로 250만 B/D나 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정제시설이 파괴됨으로써 極東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제품수급의 팽박이 예상되고 있다. OPEC의 산유량은 걸프위기 발발후인 '90년 8월에 1,970만 B/D로 감소했다가 12월에는 다시 2,360만 B/D로 걸프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지난 1/4분기중에도 2,300만 B/D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해상비축분을 포함한 석유의 상업재고가 높은 수준에 달해 앞으로 여름철 비수기에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OPEC는 지난 3월 11일 각료감시위원회를 열어 원유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 2/4분기의 산유량을 2,230만 B/D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란, 알제리는 배럴당 21달러의 기준가격을 달성하기 위

해 산유량을 2,100만 B/D까지 감축할것을 주장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2,200만 B/D이상의 생산을 주장했다. 사우디는 앞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생산조정에 복귀할 때를 대비하여 석유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21달러로의 상승보다도 석유수요의 회복을 우선하고 있으며, 유가는 우선 현재 수준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OPEC의 새 산유쿼타 2,230만 B/D는 2,100만 B/D로 예상되는 2/4분기중 OPEC원유 수요와 현재 세계 석유재고수준을 감안하면 OPEC가 결정한다면 감산을 실행하더라도 여름철 비수기에는 충분한 감산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을 지탱해주는 요인이 많아 여름철 비수기에도 유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그것은 ①이라크, 쿠웨이트원유의 수출중단 ②석유收入 확보를 위한 OPEC의 가격유지 자세 ③美國의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증가의 가능성 ④소련

의 석유생산·수출감소등으로 여름철 비수기에도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OPEC의 원유생산이 산유쿼타인 2,230만 B/D를 넘을 경우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OPEC은 오는 6월 4일에 열리는 정례석유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생산상한과 국별 산유쿼타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가격도 오는 7월 이후부터 연말에 걸쳐서 점차 회복되어 겨울철 성수기에는 배럴당 20달러 전후(플러스스 마이너스 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튀니위니해도 걸프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전쟁전까지만 해도 '9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었던 석유수급 팽박시기가 '90년대 후반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걸프위기를 계기로 산유국들이 원유생산능력을 대폭 확대시킨데다가 소비국들이 中東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석유수요 증가가 걸프전쟁전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86년 이후 5년간은 연평균 2.4%씩 증가했으나, '90년대에는 상반기에 연평균 1.4%, 하반기에는 1%로 평균 1.2%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수요는 '90년대에 연평균 2%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2.3%, 석탄 2.1%, 원자력 3%로 모두 석유보다 높은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걸프전쟁후의 장기석유수급전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까지 나온 텍사코, 모빌, 기타 메이저의 전망에 따르면 '90년대의 증가율로 1.2% 내지 1.5%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OPEC의 수브로토 사무국장은 자유세계 석유수요가 '90년의 5,180만 B/D에서 오는 2000년에는 5,770만 B/D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신장률은 연평균 1.1%에 해당된다.

석유공급면에서는 세계 석유확인매장량 1조 60억 배럴의 76%를 차지하는 OPEC와 이중 66%를 차지하는 中東OPEC의 생산능력의 증가가 특히 현저하다. OPEC의 원유생산능력은 현재의 2,460만 B/D에서 앞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생산회복과 함께 점차 증가하여 오는 '95년에 3,260만 B/D, 2000년

에 3,55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非OPEC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美國, 캐나다의 산유량 감소와 소련등 공산권으로부터의 석유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英國의 北海유전도 감산되어 非OPEC의 석유공급은 '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권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한 非OPEC석유의 공급은 '90년의 2,870만 B/D에서 '95년에 2,800만 B/D, 2000년에는 2,710만 B/D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OPEC의 원유생산은 '90년의 2,300만 B/D에서 '95년에 2,630만 B/D, 2000년에는 2,99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PEC 원유생산능력의 가동률은 '90년 상반기의 86%에서 '95년에 81%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는 다시 84%로 상승할 것이다.

이상에서 판단할 때 걸프전쟁전에 예상되었던 '90년대 중반의 석유수급팽박은 '90년대 후반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 종전까지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이 주장해온 가설이 걸프전쟁을 계기로 붕괴되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그것은 OPEC의 원유생산능력의 가동률이 80%를 넘으면 OPEC의 가격형성력이 강화되어, 원유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한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상반기의 OPEC 가동률은 86%, 현재는 이라크, 쿠웨이트의 생산력의 저하로 가동률이 90%에 이르고 있으나 원유가격은 상승하지 않은채 OPEC 기준 원유가 배럴당 18달러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의 석유수급은 적어도 상반기중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후에는 석유수요 증가와 非OPEC 석유생산 감소로 석유수급은 점차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석유수급측면에서 볼 때 원유가격은 '90년대 상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현재 배럴당 18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OPEC 기준원유가격은 실질가격(90년 가격)으로 '95년에 18달러 내지 25달러(인플레이션 4%의 경우 명목가격은 21달러 내지 29달러), 2000년에는 20달러 내지 28달러(명목가격 28달러 내지 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